

# 5·18 '태극기 청년' 찾았다

## 본보, 27년만에 박대현씨 만나

'1980년 5월20일은 5·18 민중항쟁 과정에서 '민주 기사'의 날'로 기억된다. 이날 계엄군은 버스와 택시를 세워놓고 젊은이들을 무작정 끌고 가는 과정에서 기사들까지 무자비하게 구타·연행했다. 오후 6시 분노한 기사들이 광주역과 무등경기장에 모여 대형버스 10여 대와 택시 200여 대를 앞세우고 금남로로 달려나왔다. 이들의 경적과 헤드라이트 불빛은 금남로와 충장로에 걸쭉한 시위대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가공할 무력으로 인한 패배감이 강한 연대의식과 자신감으로 전환되어 계엄군을 몰아내고 광주를 해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광주오월민중항쟁연구사료전집, 한국현대사 사료연구구소편〉

주시 남구 주월동)씨를 찾았다. 그는 한국도로공사 장성영업소에 근무하고 있었다. 당시 28살로 대학을 중퇴하고 일자리를 찾던 그는 전날 오후 대인동 버스터미널에서 공수부대에 맞은 뒤 울분을 찾지 못하고 이날 오후 금남로에 나왔다. 그는 수창초등학교 앞에서 도청으로 향하던 차량 시위대를 만나 맨 앞쪽 버스에 올라탔다. 잠시 후 누군가 "버스 위로 올라가 태극기를 흔들자"고 소리쳤다. 박씨는 버스 안에 있던 태극기를 들고 창문을 통해 지붕으로 올라갔다. 시민들의 합성과 박수가 쏟아졌다. 박씨는 태극기를 더욱 힘차게 흔들었다. 저 멀리 도청에서 계엄군이 총을 겨누고 있었지만 두렵지 않았다.



1980년 5월 20일 금남로 차량시위에서 당시 28살이던 박대현씨가 검은 양복을 입고 대형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버스위 태극기 흔들며 시위대 이끌어

### 누가 잡아갈까 두려움 떨며 숨어 지내

### “큰 일도 아닌데...5·18 정치적 이용 안돼”

오후 6시 40분 시위대의 선두인 대형버스 지붕에는 20대 청년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청년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홀로 태극기를 흔들며 시위대열을 이끌었다. 이 모습은 광주일보(당시 전남일보) 사진 기자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고, 이후 온 시민이 힘을 합쳐 '해방 광주'를 이끈 대표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로 각인됐다.

하지만, 태극기를 흔들던 청년은 이후 어느 곳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를 찾아 당시 상황을 다시 들여보려는 솔한 노력이 있었지만, 민중항쟁이 '폭동'으로 매도당하던 군사정권 하에서 '혹여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돼 스스로 입을 닫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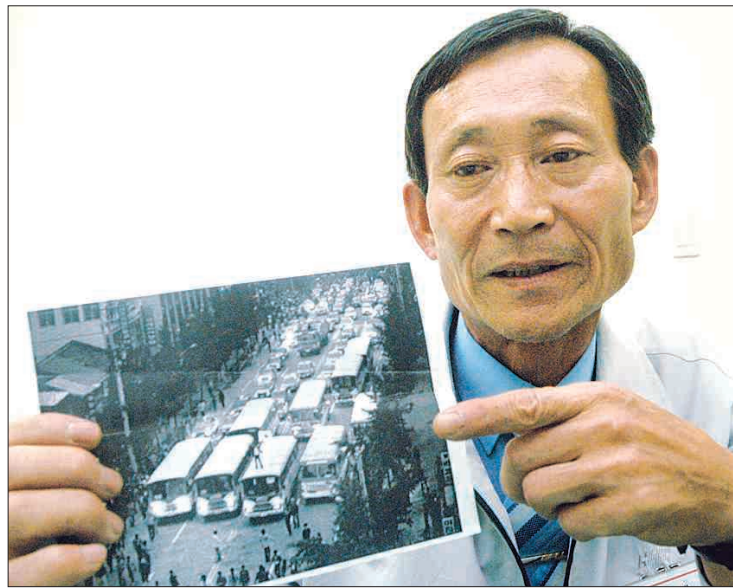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청년은 초로의 나이가 됐고, 그날의 목숨 건 항쟁을 술자리에서까지 숨길 수 없었다. 얘기는 흘러 광주일보에 전해졌다. 광주일보는 27년 만인 16일 오후 '태극기 청년' 박대현(55·광

“가자 도청으로”, “시민들을 때리지 말라” 여기저기서 구호가 터져나왔다.

도청이 가까워지면서 시민들이 하나 둘 버스 위로 올라와 태극기를 흔들었다. 마침내 계엄군이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시위대는 해산돼 사직공원 쪽으로 물러갔다. 그래도 스스로의 힘을 확인한 시민들은 이날 밤 MBC방송국, 노동청, 세무서에 불을 지르고 도청과 광주역 주변에서 계엄군과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박씨는 “그날의 장면을 1990년께 TV 화면을 통해 처음 봤고, ‘누가 나를 잡아가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에 TV를 꺼버리고 말았다”고 회고했다.

그는 항쟁이 끝난 뒤 많은 시민들이 불잡혀 가는 것을 보고, 차마 주변에 자신의 버스 위에서 태극기를 흔들었다고 말할 수 없었다. 5·18 부상자로 인정받은 1990년 이후에도 입을 닫았다. 4명의 자녀 중 3명이 공무원이라 혹독이익을 받지 않



박씨가 자신의 모습이 담긴 광주일보 보도사진을 보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을까 걱정돼서였다.

“대인동 터미널에서 군인들에게 맞으면서 한 발 뺀 외출복이 찢어져 그날은 양복을 입고 나왔는데 그 모습이 그대로 화면에 찍혔더라고요. 태극기를 흔들 게 큰 일도 아닌

데 자랑하고 싶은 맘도 없었습니다.”

그는 요즘 순수했던 5·18을 자꾸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며 담배를 피워뉘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인터넷, 5·18 왜곡의 바다

### 北의 조직적 음모·무장폭동 등 허위 유포

정보의 바다로 불리는 인터넷에 왜곡된 5·18 관련 정보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980년 5월 광주 학살의 실질적 책임자인 전두환씨의 팬클럽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은 포털 사이트다음(www.daum.net)에 카페를 개설, '제5공화국' 코너를 통해 민중항쟁을 '북한에 의한 조직적인 음모'로 규정하고 홍보를 하고 있다.

2003년 10월에 만들어져 회원만 1만3천198명에 이르는 이 카페 운영자 박모씨는 게시판에 '5·18에 대한 오해 푸십시오. 진실 밝힘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놨다. 이 글은 '5.18의 시발점은 분명히 민주화운동이었지만 살육 현장 투입되었던 북한군의 교란작전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만행이다'고 주장하는 등 5·18 민중항쟁과 북한을 연계시키고 전두환씨의 개입에 대해 부정하는 글이 줄지어 올라와 있다.

또 네이버(www.naver.com)의 '5.18 폭동의 진상을 파헤쳐라' 카페에는 5·18을 폭동으로 묘사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사례를 모집한다는 글이 버젓이 올라와 있으며 같은 사이트 검색

색계시판에는 '북한군이 휴전선 부근으로 병력을 증강한다는 거짓 정보를 발표해 한국 신군부가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5월의 시작이다'라는 황당한 글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달에 들어서만 6대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네이트·야후·엠파스·파란)에 올라온 5·18 관련 질문은 210여 개에 이르지만 '광주사태는 간첩이 조종했나요', '5·18은 폭동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하는 등 일부 네티즌들은 '무장폭동', '민란' 등의 단어를 거리낌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몇몇 네티즌들이 5·18 기념문화재단 홈페이지(www.518.org) 등에 이 같은 사례를 고발하고 있지만 관련 단체들은 뾰족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해 답답해 하고 있다.

조정관 전남대 5·18 연구소 부소장은 "아직까지 진상규명 활동이 부족하고 관련 교과서 하나 없는 것이 왜곡된 정보 유포를 부른 것 같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 후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 광주 출신 산악인 이현조씨 등 2명

## 에베레스트 등정중 추락 사망

한국 산악계의 유망주였던 광주 출신 산악인 이현조(35·광도원코리아)씨와 제주 출신 오희준(37·서귀포 영천산악회)씨가 에베레스트 남서벽 신루트 개척 등반 과정에서 사고를 당해 숨졌다.

대한산악연맹과 전남대OB산악회, 현지 원정대에 따르면 16일 새벽 제4캠프(7,700m) 텐트안에 머물고 있던 두 대원이 낙석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추락했다. 사고 직전 오씨는 베이스캠프와 무전 교신 중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냈으며 이후 교신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원들은 이날 오후 수색 작업에 나서 제2캠프(6,400m) 부근에서 침낭에 쌓인 이 대원의 시신을 발견했다. 원정대는 17일 세르파들과 함께 시신을 베이스캠프(5,400m)까지 옮긴 뒤 18일 헬기로 카트만두까지 운구할 예정이다.

이날 사고로 숨진 이씨는 전남대산악회 출신으로 지난 2000년 마칼루와 브로드피크, 시샤판마 남벽, 2005년에는 남가파르밧 투펄릭, 에베레스트

를 등정하는 등 히말라야 8,000m급 5개 봉을 오른 베테랑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등록금 협상 결렬 항의

### 조선대 총학 총장실 점거

조선대 총학생회가 대학본부와의 등록금 협상 결렬에 항의해 16일 총장실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총학은 이날 오후 대학본부와 협상을 갖고 당초 합의한 등록금 7% 인상을 수용하되 매학기 등록금의 3%를 환불할 것과 5억원의 복지기금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곧바로 총장실을 점거했다. /오광록기자 kroh@

**명품신도시의 중점특권을 누리는 3,813 회대단지!**  
**!풍경정원·호수공원 정의 최고 입지!**  
**수완신도시 피오레**  
**분양문의 062)367-9000**

## 니원침 (7211) 김종두



**더 좋은 건축·산업자재 KCC**  
**DS건설(주) KCC창호, 센스도어 대리점**  
**KCC창호, 시스템창호 생산·시공**  
 ▶문의:062)514-3002 ▶공양:061)337-9605

**(주)본드나라 KCC실리콘 페인트 대리점**  
**실리콘·방수제·접착제·테이프**  
 ▶광주점:062)525-9002 ▶분주점:063)271-5051

### 흡피 올린 사진에 강도짓 '들통'

○~20대 남성이 강도 혐의를 부인하다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월드'에 올린 얼굴 사진 때문에 범행이 들통.

○~광주 북부 경찰은 16일 부녀자를 상대로 강도짓을 한 천도(28·광주시 북구 오치동)를 강도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천씨는 지난 10일 새벽 4시28분께 광주시 북구 오치동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귀가 중인 김모(여·26)씨를 위협·폭행한 뒤 현금 20만 원과 금반지를 빼앗고 성추행하는 등 여성들을 상대로 모두 3차례에 걸쳐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

○~천씨는 또 다시 강도짓을 벌이기 위해 이날 새벽 3시께 이 아파트를 배회하다 순찰중인 경찰에 붙잡힌 뒤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자신의 안경과 '사이월드'에 올린 사진을 찾아내자 범행을 시인했다고. /이종형기자 galee@

**BORYUNG 보령제약** 50 BORYUNG A healthy society is the only dream of Boryung 보령 창업 50주년

# 목이 칼칼할 땐, 용각산 쿨!

**황사** **매연** **미세먼지**

황사, 매연, 미세먼지로 인해 목이 답답하고 칼칼할 땐 용각산 쿨입니다. 물 없이 먹는 과일, 용각산 쿨은 칼칼한 목에 직접 작용합니다.

칼칼한 목을 시원하게~용각산 쿨!

▶기관내부에서의 점액 분비 증가와 섬모운동 촉진으로 가래를 제거해줍니다.  
 ▶신맛하고 시원한 복숭아향과 민트향, 두가지 향이 있습니다.  
 ▶물 없이 먹는 과일이라 휴대가 간편하고 먹기 편합니다.

용각산 쿨 TV-CF

※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의하고 사용상의 주의 사항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심의필: 908-0500